

2013년 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삼일 하나님께서 세 부분으로 된 사람에게 생명이심

메시지 14

복된 삼일성을 누리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함과
생명 안에서 성장하기 위해 합당한 영을 가짐

성경: 유 19-21; 눅 9:51-56

- I. “이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이들이며, 혼적인 이들이고 영을 갖지 못한 이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고, 영원한 생명[곧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아들]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유 19-21.
- A. “프쉬케(혼)’는 사람 존재의 중심이며, 각 개인의 ‘자아’이다. 각 사람 안에서 혼은 사람의 더 높은 부분인 영과 연결되어 있고, 또 사람의 더 낮은 부분인 몸과 연결되어 있는데, 영은 사람을 위로 끌어올리고 몸은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린다. 더 낮은 욕구에 자신을 내주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자신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면서 더 높은 목표에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다. 자신과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중간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동물적이든 지성적이든 ‘프쉬케코스’, 곧 혼에 속한 사람, 자아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의 영은 침체되고 하락되어서 더 낮은 ‘프쉬케(혼)’에 종속된다”(알포드).
- B. ‘영을 갖지 못한’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가리킨다.
1. 변절자들에게는 영이 결여되어 있다. 그들에게 “사람의 세 부분 중(살전 5:23) 하나인 영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의 영은 가치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이 하락하여 자아 생명인 ‘프쉬케(혼)’의 능력 아래 떨어져 영 자체의 실재적인 활력이 없기 때문이다”(알포드).
 2. 변절자들은 영을 주의하지 않고 영을 사용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접촉하지도 않으며, 또한 영 안에서 살고 행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육체에 이끌려 육체적인 사람이 되었고, 양심의 의식(참조 벴후 2:12, 비교 엠 4:17-21)을 잃어버렸으며, 이성 없는 짐승들처럼(유 10) 되었다.
- C. 복된 삼일성 전체는 믿는 이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그들의 영을 훈련함과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지키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림에 의해 사용되고 누리진다.
- D.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목표를 가리킨다. ‘이르도록’은 ‘되다’ 혹은 ‘되어지다’를 의미하며 영원한 생명의 총체는 새 예루살렘이다. 따라서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들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으로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의 영을 훈련하여 복된 삼일성 전체를 누린다—엠 1:3-5; 계 21:2.
- II. 누가복음 9장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거절한 사마리아 마을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불사르라고 명령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께 물었지만(51-54 절),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꾸짖으시면서, “여러분의 영이 어떠한지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목숨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라 구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55-56 절).
- A. 제자들이 그들의 영 안에서 잘못되었던 이유는 그들의 동기가 증오에서 나온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주님의 영은 사람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영이다.

- B. 위치만 니 형제님은 사람이 올바른 것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한 올바른 영 안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올바른 것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 C.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이 건설적이고 유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행하는 일에 있어서 올바라야 하고, 우리의 방식에 있어서 올바라야 하며, 우리의 영도 올바라야 한다. 언제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어떤 영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 D. 영을 처리하는 것은 우리의 영 자체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통로를 처리하는 것이다—눅 9:54-56; 벰전 3:4.
1. 거듭난 영, 곧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부분은 순수하고 오염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혼과 몸이고 이 둘은 모두 사탄의 사악한 요소가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럽고 부패되었다.
 2. 그러므로 영이 나오고 혼과 몸을 통과할 때 그것은 더러움과 부패함으로 오염된다. 그러므로 영이 나타날 때 어느 정도의 더러움과 부패와 불순함과 부도덕함과 여러 가지 나쁜 상태들을 담고 있다.
 3. 우리는 영에 붙어있는 것들의 특징들에 의해 영의 특징들을 판단한다.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영이 수반하고 있는 그러한 종류의 특징들을 산출한다. 우리의 영이 해방될 때 우리의 영은 우리의 인격 자체의 입맛과 색깔을 표현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품격이 그의 영의 품격을 결정한다.
 4. 영을 처리하는 실행적인 길은 모든 혼합을 유죄판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며 십자가를 적용하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타고난 조성과 우리의 마음의 목적과 목표와 의도와 선호와 동기 등등을 포함한 영의 통로를 십자가에 못박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롬 8:13.
 5.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처리하시고 그것을 파괴하시려는 목적을 위해 우리의 환경 안에 있는 모든 것들과 상황들을 안배하신다. 이런 방식으로 성령의 징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품격은 높아지고 정화된다—롬 8:28-29.
 6. 모든 형제들과 자매들이 품격에 있어서 탁월하고 가치있고 순수하고 무게있고 고귀한 영을 가지고 있다면 그들은 상호적으로 서로 공급할 것이고 교회는 풍성하게 될 것이다—비교 단 5:12; 6:3.
- E. 추구하는 성도는 영 안에서 가난하고 마음이 순수해야 한다—마 5:3, 8; 사 66:2.
1.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우리가 아무 것도 갖지 않고, 아무 것도 알지 못하며, 아무 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가 겸손한 것을 의미한다.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없으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다—비교 갈 6:3.
 2. 영 안에서 가난한 것은 우리의 영 안에서 비워진 것, 우리의 존재 깊은 속에서 우리를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이다. 마음이 순수한 것은 동기에 속한 문제이다. 그것은 목적이 단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단일한 목표를 갖는 것이다—고전 10:31.
- F. 우리는 반드시 견고한 영을 가져야 한다—시 51:10 하.
1. 견고한 영은 단단하고 안정적인 무언가가 계속 서 있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이다—비교 고전 15:58.
 2. 다윗은 복원을 위한 자신의 회개와 기도 안에서 주님께서 자신 속에 그러한 영을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했다.
 3. 우리에게는 견고한 영, 곧 우리가 결코 유혹당하거나 속임당하거나 잘못 인도되지 않도록 언제나 단단하고, 끊임없고,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영을 가져야 한다.
- G. 회개한 믿는 이는 자원하는 영을 갖고 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불드소서”—시 51:12.
1. 믿는 이들인 우리는 항상 주님을 위해서와 교회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자원하는 영을 가져야 한다.

2. 주님의 권익에 속한 것들에 있어서 자원하는 영은 구원의 즐거움에 달려 있다. 우리에게 구원의 즐거움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한 자원하는 영을 갖게 될 것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갈망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는 응답하고 순종하기 위해 자원하는 영을 갖게 될 것이다.
 3.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에서 즐거움을 가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는 것에 대해 기뻐하게 될 것이다—롬 14:17.
- H. 시편 51 편 17 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제사는 상한 영이라고 말한다.
1. 상한 영은 회개하는 영, 어떤 죄악된 것에 대해서도 매우 슬프게 느끼는 영이다. 달리 말하자면 상한 영은 참으로 회개하는 영이다.
 2. 부서진 것은 전체적이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체적이거나, 온전하거나 완전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의 영이 회개할 때 우리의 영은 부서지고, 통회하고, 슬프다.
- I. 우리는 온유하고 정숙한 영을 가져야 한다.
1. 베드로전서 3 장 4 절은 마음에 숨겨진 사람이 온유하고 정숙한 영이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6 장 1 절은 우리가 넘어진 형제를 온유한 영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고린도전서 4 장 21 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이들에게 자신이 매를 가지고 들에게 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온유한 영 안에서 가기를 원하는지 물어 보았다.
 2. “온유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때문입니다.”—마 5:5.
 - a. 온유하다는 것은 세상의 반대에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기꺼이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세상의 방식은 어떤 소유를 얻거나 유업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이들과 싸우고 분투하고 패배시키는 것이다.
 - b.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다른 이들과 싸우지 말고 온유해야 한다. 온유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싸우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 J. 하나님은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갈망하신다—사 57:15; 66:2; 비교 잠 16:18-19.
1.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서 통회하고 겸손하다면 우리는 영 안에서 파쇄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그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2.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사 57:15.
 3.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권고하려니와”—66:1-2.
 4. 하나님께서 갖기를 갈망하시는 거처는 하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는 한 무리의 사람들,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이다.
 - a. 하나님은 우주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거처를 갖고자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하나님은 서로에게 상호거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건축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건축되신다(요 14:2, 20, 23; 15:4; 요일 4:13); 신약에서 이 거처, 이 집은 교회이며 교회는 믿는 이들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이다(엡 2:22).
 - b. 이 우주적인 건축물, 곧 이 우주적인 집의 궁극적인 나타남은 새 예루살렘이다. 이 성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에 계시고 사람을 그분의 거처로 취하시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의 거처로 취한다—계 21:3, 22.